

세계정당인들과 함께한 김대중 대통령의 상념을 되새기다.

임핑 다이내믹스 컨트리 클럽

- 광주 - 동광명IC 구간 광복 동원드 산봉 (당첨 후환영)IC 영수증 프린트 서비스
- 무천시 9월 이후 출발요금정산제 실시
- 예약: www.hpdyashy.co.kr 0801 320-7700



베일 벗는 개막식...오늘 최종 리허설



■ 박성화호 중국 도착 첫 훈련

개막 직전 2008개의 북이 울린다

‘하나의 세계, 하나의 꿈’, ‘One World, One Dream’, ‘同一個世界, 同一個夢想’ 13억 중국 대륙이 100년을 기다렸다는 하나의 꿈이 이제 사활 앞으로 다가왔다. 지구촌의 주목을 끌고 있는 2008 베이징올림픽은 8일 밤 8시 8분 베이징스타디움인 ‘귀자타위칭(國家體育場)’에서 화려한 막을 울리고 17일간의 열전을 시작한다.

1964년 도쿄, 1988년 서울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번째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전 세계 205개국에서 1만50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해 28개 종목에 걸린 금메달 302개를 놓고 치열한 접전을 벌일 예정이다.

어느덧 ‘아시아의 공룡’으로 자리잡은 주최국 중국은 이번 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노리고 있다. 중국은 올림픽 개막식에 조지 부시 미국

밤 8시 8분부터 베이징 하늘 ‘불꽃 쇼’

(한국시각 밤 9시 8분) 100개국 정상 참석...한국 177번째 입장

대통령과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 등 100여 개국 정상을 초청하며 국력을 과시하고 있다.

8일 열리는 개막식 입장순서는 중국의 간체자(簡體字) 국명 첫 글자 획수에 따라 한국은 177번째로 입장하며 북한은 뒤를 이어 178번째로 들어온다. 남북한 공동입장이 끝내 무산된다면 한국선수단은 유도 100kg급의 장성호가 태극기를 앞세우고

입장할 예정이다.

개막식은 베이징 현지시각으로 8일 밤 8시8분(한국시각 밤 9시 8분)부터 올림픽 주경기장인 귀자타위칭(國家體育場)에서 3시간30분 동안 진행된다.

공식 개회식은 밤 8시8분 시작되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각종 행사는 오후 6시 15분부터 열린다. 한바탕 신명나는 놀이 판이 끝나는 오후 7시반께 한국인 최초로

국제연합(UN) 최고 실무책임자 자리에 오른 반기문 사무총장이 전광판을 통해 올림픽 개막을 축하하는 평화의 메시지를 전한다.

이어 각국 정상이 귀자타위칭에 입장하고 밤 8시8분을 코앞에 둔 시점부터 2천8명의 장정이 대회 개막을 알리는 북을 울린다.

시계가 밤 8시8분으로 바뀌는 순간 귀자타위칭 곳곳에서 폭죽이 터지면서 화려한 불꽃이 베이징 하늘을 뒤덮는다. 여기서부터 밤 9시5분까지 한 시간 동안은 중국 역사소가 테마별로 펼쳐진다.

성화 최종 점화자와 점화 방식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진 가운데 조직위원회는 5일 최종 리허설을 갖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금빛 과녁’ 향한 정조준

2008 베이징올림픽 개막을 나흘 앞둔 4일 베이징 올림픽 그린 양궁장에서 훈련에 나선 한국 박성현, 윤옥희, 주현정 등 참가선수들이 시위를 당기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객 남현희 4일 펜싱국가대표 남현희 선수가 펜싱경기장에서 훈련준비를 하고 있다.



올림픽 소식

박태환 훈련 탐색...경쟁자들 벌써 신경전

해켓 “1,500m 금 내 것”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한국 수영 사상 첫 금메달을 노리는 ‘마린보이’ 박태환(19·단국대)의 훈련 과정을 라이벌 관계자들이 은밀하게 탐색하는 등 경기 전부터 신경전.

자유형 400m 뿐만 아니라 자유형 1,500m까지 박태환의 라이벌 가운데 한 명인 장린을 전담하고 있는 중국 팀 코치는 4일 오전 올림픽 메인 수영장인 국가아쿠아틱센터(위터큐브)에서 훈련한 박태환의 50m 구간 시간을 시계로 체크하면서 정보를 캐낸 것.

한편 박태환의 최대 라이벌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막판 담금질을 하다 3일 저녁 호주 대표팀과 함께 베이징에 들어온 그랜트 해켓(27)은 “지난 두 번의 올림픽보

다 훨씬 마음이 편안하다”며 자유형 1,500m 금메달에 대해 강한 자신감.

양궁협회, 활 전문가 급파

○사상 첫 양궁 금메달 쏘울이를 노리는 한국 양궁이 40도를 오르내리는 베이징 무더위에 혹시 활이 부러질까봐 활 전문가를 현지로 특파.

대한양궁협회는 5일 삼익스포츠 임원택(34) 과장을 협회 경비로 베이징에 보낼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임 과장은 16일까지 양궁 대표팀 결에서 24시간 대기하면서 대표팀 장비 전반에 대해 조언하고 돌발 상황 시 도움을 줄 예정.

임 과장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20년 이상 활을 다룬 국내 최고 수준의 양궁 전문가로 충남체육고와 부산동맹대를 나와 부산서구

청에 이르기까지 17년간 선수로 활을 만졌고, 2000년부터 9년간 국내 활 제조사인 윈앤윈과 삼익스포츠에서 활 품질과 영업을 담당.

성화 최종주자 초미의 관심

○13억의 중국인들이 100년을 기다렸던 2008 베이징올림픽 개막식에서 하이라이트인 영예의 성화 최종 점화자에 관심이 집중.

최종 점화자 후보로는 중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스타들이 우선 후보군에 들어 있지만 아테네올림픽 육상 남자 110m 허들 우승자인 ‘황색탄환’ 류시양과 미국프로농구(NBA) 기대주 이젠렌, 선수촌 대변인으로 변신한 ‘탁구마녀’ 덩아핑은 이미 대회를 앞두고 성화 봉송 주자로 참여했기 때문에 점화자 명단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

대신 NBA 최고의 스타로 중국을 세계에 알린 ‘걸어다니는 만리장성’ 야오밍은 아테네올림픽 성화 봉송 때 중국 구단 마지막 주자로 뛰었을 만큼 중국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어 0순위 후보지만 자신보다는 선배 세대가 점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



베이징올림픽 한국축구대표 선수들이 4일 오전 친황다오 올림픽스포츠센터 스타디움 보조경기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썸통더위 대비 속도조절 훈련

영국 스포츠 배팅업체

“한국 우승 배당률 9위”



축구

한국 축구대표팀은 4일 낮 친황다오 올림픽 스포츠센터 스타디움의 A보조구장에서 중국 도착 후 첫 훈련을 가졌다.

1시간 여의 가벼운 훈련이었지만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날씨 속에 선수들의 몸은 훈련을 시작하자마자 금세 땀으로 범벅이 됐다. 이날도 기온은 32℃ 안팎까지 올랐다.

미드필더 이정용(서울)은 훈련 뒤 “생각보다 덥지 않다. 가만 있으면 덥지만 뛰면서 바람을 맞으면 시원하다”고 말했다. 박성화 감독은 “경기를 치를 오후엔 어떻게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덥다. 한국의 한여름날씨와 비슷하다”고 밝혔다. 박 감독은 무더위에 대한 해법으로 “경기템포 조절”을 들었다.

그는 “지난달 과테말라, 코스타리카와 평가전 때는 날씨가 쾌했다. 그래서 수비에게도 공격 가담을 강조했고, 미드필드 플레이도 활발히 이뤄지는 등 정상적인 경기 운영을 했다. 하지만 마지막 호주와 평가전 때처럼 날씨가 무더웠다면 이런 움직임은 자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즐기기차게 밀어붙이다 제 풀에 쫓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박 감독은 “수비 라인을 올려 세울지, 내려 세울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었다.

박 감독은 7일 카메룬과 첫 경기에 대한 준비에서도 무엇보다 수비 조직력을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홍콩에서 열린 네덜란드와 4개국 초청대회 카메룬-네덜란드전을 관전하고 돌아온 박 감독은 “당시 카메룬의 경기 운영은 우리가 호주와 붙었을 때 호주 보여준 것과 비슷했다. 긴 패스 연결을 하고, 순차적으로 공격 숫자가 늘어나 4-2-4 포메이션이 된다. 수비로서는 일대일 상황을 맞게 돼 급할 수 있다. 위험한 부분이다. 수비 배후를 때리는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국의 대표적인 스포츠 배팅 업체 윌리엄힐과 레드브룩스가 나란히 박성화호의 베이징올림픽 남자축구 우승 배당률을 16개 본선 참가팀 가운데 공동 9위로 매겼다.

4일(한국시각) 윌리엄힐 홈페이지(www.willhill.com)에 마련된 ‘2008 베이징올림픽 남자축구’ 항목에 따르면 7일 마감되는 배팅 결과 아르헨티나(13/8)와 브라질(12/5)이 나란히 배당률이 가장 낮아 유력한 금메달 후보군으로 꼽혔다.

아르헨티나의 배당률은 800달러를 걸면 1천300달러(약 1.63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르헨티나의 우승에 돈을 걸어 배당률이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33/1의 배당률(33배)로 미국과 함께 공동 9위를 차지했고, 조별리그에서 만날 이탈리아(15/2)와 카메룬(20/1)은 각각 3위와 6위에 올랐다.